

의료혁신위원회 본격 가동, 공정·투명한 공론 구조로 의료혁신 추진

- 지역·필수의료 강화·초고령사회 대비 등 핵심 의제 민주적 절차로 논의 -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였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이며,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 19 대응에 기여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되었다.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 ②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 ③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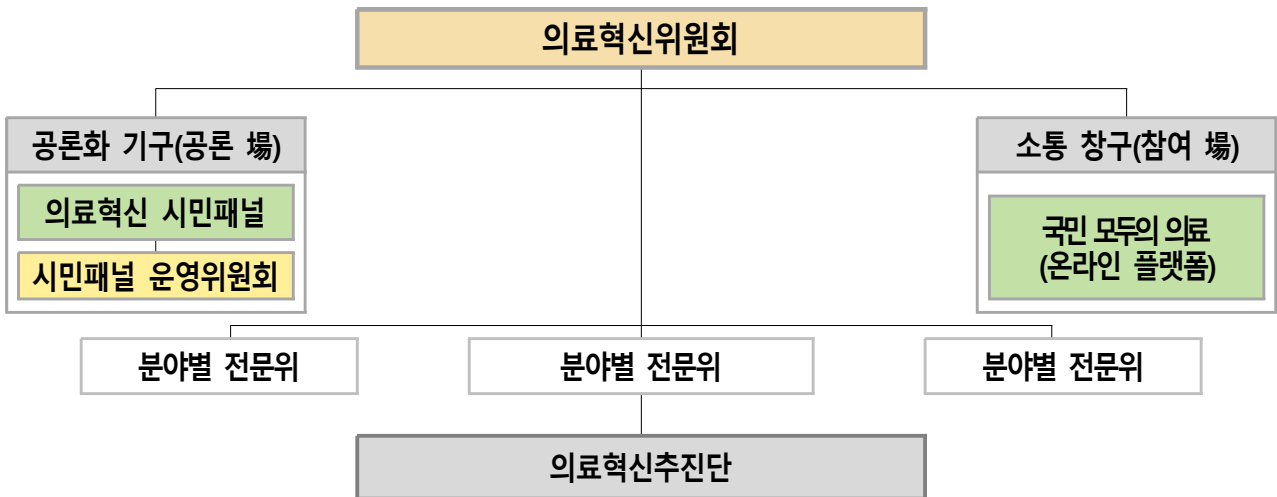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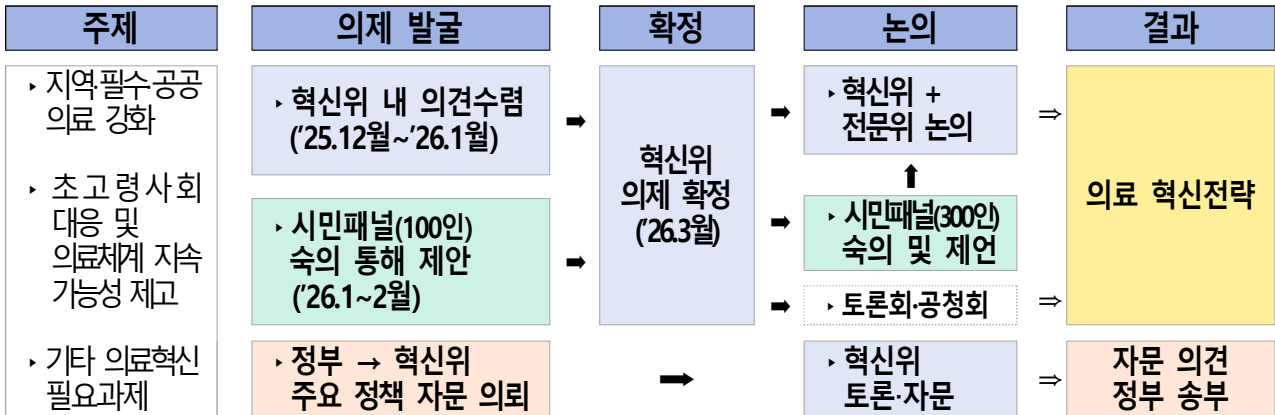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 의료혁신위원회 구성도 >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의제 선정·논의 절차 >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언급하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혁신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자문할 계획이다.

<붙임> 의료혁신위원회 명단

<별첨>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 안건

담당 부서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 준 (044-202-1860)
		담당자	사무관	유규연 (044-202-1861)



구분	성명	직위·경력
위원장	정기현	前 국립중앙의료원장
부위원장	여준성	원주와 함께 연구원장, 前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
민간위원	김창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유일	전남대병원 교수
	한성준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권공록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한영란	동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은영	한국 YWCA 연합회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명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	
정부위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